

중대 기로에 선 우리금융... 25일 손태승 회장 거취 결정

‘문책 경고’로 3~5년 취업 제한
DLF 사태처럼 행정소송 가능성
25일 이사회서 연임 방향성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차기인사 압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경영성적을 올린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로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선 오는 25일 정기 이사회에서 연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 등 퇴직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

용이 코스닥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 있던 주식 가

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2019년 3577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손 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내년 3월까지인 지주 회장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금융은 오는 24~25일 정기 이사회에서 최근 우리금융그룹을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은 브리핑 및 간담회, 25일은 손 회장의 거취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와 임직원 징계조치와 개선계획 등을 마련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이후 금융당국 징계에 대한 손 회장의 가치분신청 결

정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치분신청은 10일 이내 결론이 나온다. 가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손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손 회장은 2020년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을 때도 효력 정지 가치분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또한 이번 이사회에 금융권이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금융을 향한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CE

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체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외이사 임기도 과도하게 겹치지 않게 함으로써 이사회 의사결정의 다양성과 전문성, 독립성 제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차기 인선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에게 경고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년 7개월간 멈춰있던 손 회장에 대한 제재안이 연발을 앞두고 결정된 이유와 사실상의 압박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있다”라며 “외압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단행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저축銀, 예금금리 다시 오른다... 연 7%대 상품 임박

시중은행과 수신경쟁 치열
“1%p 이상 높아야 경쟁력”
경쟁 심화에 인상 불가피

주요 저축은행이 다시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연 5%대 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이르면 연내에 또는 내년 초 연 7%대 예금 상품 등장을 예상하고 있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평균 예금 금리는 연 5.5%로 나타났다. 이달 연 5.4% 선에 머물던 예금 금리가 연 5.5%대에 진입했다.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인상하자 자금 조달에 위협을 느낀 저축은행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의 예금 인상은 시중은행의 조달 속도에 불이 붙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석이다.

지난달 1일 연 3.85%를 나타낸 저축은행 평균 예금 금리는 한 달 사이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또 오를 전망이다. /뉴시스

1.58%포인트(p) 상승했다. 이달 1일 저축은행 평균 예금 금리는 5.42%까지 올라갔다. 일부 저축은행은 연 6.5% 수준의 정기 예금을 출시했다. 그러나 업계 평균 예금 금리는 연 5.4% 선을 돌파하지 못하며 답보상태를 나타낸 것. 저축은행 평균 예금 금리가 연 5.5% 선에 진

입한 것은 저축은행 전반에 수신 경쟁이 치열하다는 방증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이 본격적으로 조달 경쟁에 뛰어들면 예금 금리 인상만으로는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 예금주들이 1%p 내외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중은행의 예금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격차를 벌이기 위해선 예금 금리를 1%p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을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1%p 이상 예금 금리를 인상해야 수신 경쟁력을 갖추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업계에 연 7%대 예금 금리 등장도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조달 경쟁이 심화하면 저축은행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 7%대 예금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속도대로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토스뱅크, 금융권 최초 중저신용자 대출 40% ↑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가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40%를 넘어섰다.

토스뱅크는 지난 19일 기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KCB850점 이하)비중이 40.1%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40%를 넘어선 건 제1금융권 가운데 처음이다.

기업대출 48.3% 중저신용자 대상 ‘사장님 대한대출’ 대출잔액 300억

토스뱅크는 가계·기업대출로 총 8조 원을 공급했다. 지난해 말 여신잔액은 5315억원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은 총 2조 7000억원이다.

또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대출은 전체 기업대출의 48.3%를 넘어섰다. ‘사장님 대한대출’ 서비스는 2개월 만에 대출잔액 300억 원을 넘어섰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1년 간 토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시장의 중저신용 고객 4명 중 1명 이상(25.7%)을 고신용자로 재평가했다.

고객 가운데 신용점수 475점(과거 KCB 기준 8등급)까지 대출이 이뤄졌고, 이들은 성실 상환 등으로 신용점수 상향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을 가장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은행이 되겠다”며 “개인사업자 대출 등이 중저신용 대출 비중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시장의 여러 자금 수요와 금융사 각자대를 들여다보고 제 역할을 하는 신뢰의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장기근속자는 DB형, 이직 잦으면 DC형 유리



퇴직연금

근로자 중도인출은 DC형만 가능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A씨는 회사로부터 퇴직연금 제도로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이 있다고 안내 받았다. 그런데 두 상품의 차이를 몰라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 시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은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경우는 DB형을,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상회할 때는 DC형을 선택하라고 추천했다.

퇴직연금이란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이나 노동자가 운용해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상품은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사용자)에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근로자)이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

자에게 추천된다. 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에도 DB형으로 가입하는 게 낫다.

반면, DC형은 기업(사용자)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다. 개인(근로자)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진다. 장기근속이 어렵거나 승진기회가 적고, 투자에 자신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단,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한 만큼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

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연수와 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 임금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즉,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드는 평균임금 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지급되나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이나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도인출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다면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